

이 보드에서 cBet 해야하나요?

지난 10개의 강의를 통해 우리는 프리플랍 레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틀을 잡았습니다. 이 틀이 잘 형성된 사람은 플랍 이후에도 훨씬 더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핸드로 밸류를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또 블러프를 한다면 어떤 핸드를 상대로 할지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납니다.

플랍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액션은 컨티뉴에이션 벳, 즉 C-BET입니다. C-BET 전략을 모두 다루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부족할 만큼 변수들이 많습니다. 오픈을 어디서 했는지, 콜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더더건에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방어한 상황과 하이잭 오픈에 버튼이 콜한 상황처럼 포지션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각각의 컨티뉴하는 레인지도 다르기 때문에, 특정 플랍에서는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C-BET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도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프리플랍에서 어그레션을 가져간 사람, 즉 오픈레이즈나 3벳을 한 사람을 주도권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C-BET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요소는 주도권이 아니라 레인지 어드밴티지입니다. 오픈레이즈를 했다고 해서 아무 보드에서나 무작정 3분의 1 사이즈로 C-BET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C-BET 빈도와 사이즈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레인지 어드밴티지와 넷 어드밴티지입니다.

레인지 어드밴티지는 전체 레인지에서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에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했을 때, 플랍이 Q-8-2 레인보우로 떨어지면 버튼은 넓은 레인지로 작은 사이즈(약 33%)의 C-BET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전체 레인지의 에퀴티 평균을 보면 버튼이 56%, 빅블라인드는 43.9%로 버튼이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을 때는 전체 레인지로 베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넷 어드밴티지는 특정 보드에서 최강 핸드(예: 트립스, 투페어, 세트 등)가 누가 더 많은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Q-8-2 보드에서는 빅블라인드도 센 핸드가 꽤 있기 때문에, 버튼의 넷 어드밴티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 보드에선 작은 사이즈로 C-BET을 하는 이유가 넷 어드밴티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플랍이 A-K-5 같은 보드라면 버튼이 셋, 투페어, 탑페어 같은 최상급 핸드를 훨씬 더 많이 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버튼이 넷 어드밴티지를 가지므로, 팟의 150%처럼 큰 사이즈 C-BET이 자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큰 베팅 사이즈를 쓰면 상대의 중간 파켓, 약한 핸드들이 폴드를 많이 하게 되죠.

반대로 6-6-2 같은 드라이 보드에서는 체크 빈도가 늘어나고, C-BET을 하더라도 작은 사이즈(20%~33%)로 주로 베팅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프로텍션입니다. 예를 들어 7파켓, 8파켓, 9파켓 같은 핸드는 턴과 리버에서 오버카드가 나오면 에퀴티가 역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플랍에서 프로텍션 목적의 베팅을 해야 합니다. 반면 에이스, 킹스 같은 오버페어는 체크백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와 베팅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익스플로잇 당하기 쉽고, 잘하는 상대는 이런 점을 곧바로 캐치해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체크 밸런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턴, 리버에서 우리의 레인지가 캡(cap)되어 블러프에 당하거나 밸류를 크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전 플레이에서는 GTO(최적 플레이)와 실제 필드의 플레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균형 잡힌 체크레이즈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넓게 C-BET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의 체크레이즈가 나오면 2오버 핸드 등으로 폴드하는 식으로 익스플로잇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하이잭에서 KTs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한 뒤, 6-6-2 보드가 떨어진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보드는 빅블라인드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레인지로 보면 여전히 오픈한 쪽이 레인지 어드밴티지를 가집니다. 넷 어드밴티지는 빅블라인드가 갖지만,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으니 자주 베팅하고, 넷 어드밴티지가 없으니 작은 사이즈로 베팅하는 전략이 나옵니다.

턴에 3이 떨어져 플러시 드로우가 생긴 상황에서도 무조건 베팅하지 않고, 오히려 체크백을 하는 것이 GTO적으로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턴에서 상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하며, 실제로 이런 보드에서는 플랍에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었지만 턴에는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플랍 C-BET 전략에서 레인지 어드밴티지와 넷 어드밴티지, 그리고 프로텍션과 체크 밸런싱, 사이즈 조절, 그리고 상대의 경향에 따른 익스플로잇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MTT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와 개념, 실제 예시를 통해 이런 전략들을 익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티웨이인데 cbet 해야 하나요?

멀티웨이 상황에서는 헤즈업(1:1)일 때와 다르게 씨벳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멀티웨이에서는 에퀴티가 여러 플레이어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헤즈업에서는 60% 에퀴티를 가져가던 핸드가 멀티웨이에서는 40% 정도로 낮아집니다. 토너먼트 중계에서 멀티웨이 보드일 때 플레이어별 에퀴티가 줄어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멀티웨이 상황 자체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빅블라인드나 여러 플레이어가 콜해서 멀티웨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베팅 사이즈를 더 작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팟의 50% 이하, 즉 하프팟 이하의 베팅을 권장합니다. 둘째, 체크 빈도를 더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멀티웨이에서는 포지션의 이점이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버튼에 있을 때 IP(인 포지션)가 매우 유리하며, OOP(아웃 오브 포지션)에서는 훨씬 더 패시브하게, 체크 밸런싱을 섞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OOP에서 마지널한 탑페어나 파켓으로 무리하게 씨벳을 남발하면 턴과 리버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익스플로잇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멀티웨이에서는 가급적 IP에서 플레이하고, 플러쉬드로우나 파켓, 블러프 콤보로도 씨벳을 할 수 있지만, OOP에서는 블러프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의 예시에서는 UTG+2에서 Q스페이드 J클럽으로 오픈, 하이잭과 스몰블라인드가 콜해서 3인 멀티웨이 팟이 만들어졌습니다. 수강생은 플랍에서 탑페어를 맞아 씨벳을 했고, 큰 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멀티웨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사이즈로 베팅하는 것은 실수에 가깝습니다. 뽕뽕(플러쉬 드로우) 같은 핸드를 밀어내려고 했다고 했지만, 실전에서 드로우 핸드들이 이렇게 쉽게 폴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사이즈 베팅을 하더라도 드로우는 계속 따라올 확률이 높고,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 핸드들이 모두 폴드해버려 밸류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드에서는 50% 이하, 즉 3BB 정도의 작은 씨벳을 권장합니다. 밸류를 받을 때 중요한 점은, 어떤 핸드로부터 밸류를 받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같은 탑페어나 미들페어, 낮은 파켓 같은 핸드에서 밸류를 받아야 하며, 뽕뽕과 같은 드로우 핸드들은 우리보다 에퀴티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맥스 밸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베팅 사이즈가 커지면 EV(기대값)이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큰 베팅을 하면 상대가 폴드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기대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정 사이즈, EV가 가장 높은 지점을 찾는 것이 수익적인 플레이입니다. 탑페어로 밸류를 받을 때도 너무 큰 사이즈보다는 적당한 사이즈(3분의 1, 2분의 1팟)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멀티웨이 팟에서는 넷 어드밴티지가 있을 때가 아니면 큰 사이즈 씨벳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퀸잭으로 탑페어를 맞췄을 때, 우리보다 낮은 파켓이나 약한 퀸, 미들페어, 심지어 8, 9, 10파켓, 또는 플러쉬 드로우, 에이스7 같은 핸드들이 콜을 해줍니다. 하지만 플러쉬 드로우를 밀어내려 해도 어차피 잘 폴드하지 않으니, 굳이 큰 베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멀티웨이에서는 베팅 사이즈를 작게, 체크 빈도를 높게 가져가고, OOP에서는 더욱 패시브하게, IP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밸류бет도 상대 핸드와 상황에 따라 적정 사이즈를 선택하며, 드로우 핸드만을 밀어내기 위한 무리한 큰 사이즈 씨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웨이에서의 씨벳 전략의 핵심은 “작게, 균형있게, 그리고 포지션을 최대한 활용”입니다.

빅방어의 3대장 - 체크콜, 체크폴드, 그리고 체크레이즈

포커를 하다 보면 오픈레이즈를 한 어그레서 입장에서 빅블라인드 자리에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랍 이후 빅블라인드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에서는 수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 포지션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빅블라인드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끈질기거나 스티키하게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빅블라인드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무리한 방어로 칩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 레인지는 매우 넓고, 약한 핸드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의 레인지와 비교했을 때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플랍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면 패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플랍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플랍이 Q-7-4로 떨어졌을 때, 빅블라인드는 보통 동크벳을 하지 않고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빅블라인드는 어떤 보드에서도 레인지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에퀴티가 55%를 넘는 경우가 없으므로, 리드를 하지 않고 레인지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벳을 하려면 전체 레인지가 상대방보다 에퀴티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버튼이 전체적으로 앞섭니다.

하지만 4-5-6 같은 특정 보드에서는 약 26% 빈도로 동크벳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드는 동크벳 편에서 더 다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레인지 체크 이후의 게임 트리에 집중합니다.

플랍에서 빅블라인드가 체크하면, 버튼은 대체로 60% 빈도로 씨벳을 하고, 그중 대부분은 33%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레인지 벳을 합니다. 벳 사이즈 결정의 핵심은 넛 어드밴티지입니다. Q-7-4 보드에서 버튼은 넛 어드밴티지는 없지만 레인지 어드밴티지는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씨벳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A-Q-7처럼 넛 어드밴티지가 버튼에 집중된 보드에서는 팟 사이즈 이상 큰 벳도 많이 사용합니다.

버튼이 3분의 1 벳을 했을 때 빅블라인드 전략은, 탑페어(퀸X), 세컨페어(7X), 바텀페어(4X), 각종 파켓 등은 모두 체크콜로 컨티뉴할 수 있습니다. 투페어나 세트 같은 매우 강한 핸드는 체크레이즈를 해도 좋고, 체크콜도 괜찮습니다. 원페어의 경우 키퍼가 높을수록 체크레이즈 빈도가 올라갑니다.

세컨페어나 바텀페어는 쇼다운 밸류가 있고, 상대의 블러프 레인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크레이즈할 필요 없이 체크콜 라인으로 가면 됩니다. 반면, 아무런 메이드 핸드도 없고 에퀴티도 거의 없는 핸드, 즉 잭하이, 텐하이, 에이스하이,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가 없는 핸드 등은 바로 폴드하면 됩니다.

체크레이즈를 하는 핸드들은 강한 밸류 핸드(퀸7 투페어, 7-4 투페어, 세트 등)뿐만 아니라, 블러프 체크레이즈로는 거샷+백도어 플러쉬 드로우(예: 5-8 수딧, 6-3 수딧 등), 원오버+백도어 플러쉬,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섞인 핸드 등이 적합합니다. 이때 체크폴드하기에는 에퀴티가 애매하고, 쇼다운 밸류는 거의 없는 핸드가 주 대상입니다.

블러프 체크레이즈의 주 목적은 상대의 에이스하이, 킹하이 등 오버카드 콤보를 폴드시켜 이득을 보는 데 있습니다. GTO 이론상 에이스잭, 에이스텐 수딧 같은 핸드들은 계속 콜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이런 핸드를 잘 폴드하니 이 점을 익스플로잇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씨벳을 너무 자주 하는 스타일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체크레이즈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턴 전략에서는 플랍 체크레이즈 이후 우리가 드로우를 맞추거나, 백도어가 열리는 등 에퀴티가 개선된 경우에 배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스나 킹 등 버튼에게 유리한 오버카드가 떨어지면 배럴 빈도를 확 낮추고 체크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빅블라인드에서 체크콜할 수 있는 핸드들은 페어(퀸X, 7X, 4X, 파켓), 적당한 드로우, 마지널한 메이드 핸드입니다. 에퀴티가 거의 없는 핸드들은 체크폴드, 밸류 또는 에퀴티가 높은 드로우, 블러프 성격이 강한 핸드들은 체크레이즈로 섞어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플랍별, 상대의 스타일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빅블라인드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플랍에 cbet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들

많은 사람들이 플랍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렵습니다. 얼마나 배팅해야 하고, 어떤 핸드에서 밸류를 받아야 하며, 어떤 핸드를 블러프로 돌리면 좋은지 헷갈리기 쉽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나믹한 플랍에서의 C벳 전략을 살펴봅니다.

상황은 버튼이 2.3BB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한 싱글 레이즈 팟입니다. 플랍은 10-9-4, 스페이드 투톤입니다. 여기서 각 핸드별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플레이하면 좋은지 설명합니다.

먼저 버튼의 C벳 전략을 보면, 탑페어를 맞춘 A-10, K-10, Q-10 같은 핸드들은 반드시 배팅하고 싶어집니다. 플랍에서 탑페어를 히트했다면, 턴이나 리버에 잭, 퀸, 킹, 에이스 같은 오버카드가 떨어지면 에퀴티가 약해지므로, 플랍에서 배팅해서 상대의 랜덤 오버카드들(예: K-6, Q-5 수딧 등)을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배팅 사이즈로도 충분히 많은 오버카드를 폴드시킬 수 있죠.

플랍에서 작은 배팅 사이즈로 배팅할 때, K-x, Q-x, J-x 같은 핸드들은 드로우가 없다면 거의 폴드합니다. 이런 작은 배팅은 에퀴티가 거의 없는 핸드나, 예를 들어 2\~8파켓처럼 미들파켓, 혹은 바텀페어인 A-4, K-4, Q-4, J-4 같은 핸드에게 밸류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9-x, 10-x는 대부분 콜합니다.

반면 2/3 팟 사이즈로 배팅하면, 2\~7파켓 같은 약한 파켓과 일부 바텀페어, �커 약한 핸드, 백도어 드로우 없는 핸드들이 폴드하기 시작합니다. 큰 사이즈를 쓰면 폴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밸류 타겟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익스플로잇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파켓이나 바텀페어로 잘 폴드하지 않는, 즉 언더폴드하는 경향이 있다면, 굳이 작은 사이즈로 밸류를 받을 필요 없이, 탑페어로 항상 2/3 팟 등 큰 사이즈로 배팅해서 더 많은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랍 전략의 중심은 1/3과 2/3 사이즈 배팅이므로, 이 구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은, 상대가 플러쉬 드로우(뽀뽀)일 때 탑페어나 2페어, 세트 같은 밸류 핸드로 어떤 배팅 라인을 가져가야 하느냐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플러쉬 드로우를 상대로 큰 사이즈로 배팅해도 맥스 밸류를 뽑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플러쉬 드로우는 에퀴티가 높아 턴, 리버에서 역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즉, 뽀뽀를 상대로는 굳이 큰 배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에퀴티 실현도(EQ realization)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K나 A-Q로 배팅할 때, 상대가 2\~7파켓 같은 핸드라면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있지만, 블러프에 매우 취약하고, 리버까지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핸드들은 에퀴티는 나쁘지 않지만, 에퀴티 실현도가 낮아 플랍에서 배팅을 견디기가 어렵죠.

반면, 플러쉬 드로우는 에퀴티도 높고, 에퀴티 실현도가 매우 높아 큰 배팅에도 쉽게 콜하면서 리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2 수딧 같은 플러쉬 드로우는 리버까지 볼 확률이 매우 높고, 리버에 플러쉬가 완성되지 않으면 쉽게 폴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플러쉬 드로우 같은 핸드들은 에퀴티 실현도가 높으니, 이들을 상대로 에퀴티 디나이(상대의 에퀴티 실현을 방해하는 것)를 노리는 큰 사이즈 배팅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EQ 실현이 낮은 핸드, 즉 블러프에 취약한 약한 파켓, 약한 페어 등을 대상으로 작은 사이즈 배팅으로 디나이를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플러쉬 드로우는 폴드하지도 않고, 폴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핸드들에게서 맥스 밸류를 받으려 집착하기보단, 자신의 핸드와 상대의 EQ 실현도를 고려해 적절한 배팅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플랍 전략의 핵심입니다.

동크벳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빅블라인드에서 10-4로 방어했던 멀티웨이 팟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EBB 오픈에 여러 명이 콜해서 팟이 4~5BB 정도 되었고, 플랍은 2-3-10으로 깔렸습니다. 저는 이 보드가 빅블라인드에 유리하고, 10이 방어에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해 동크벳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멀티웨이 팟과 헤즈업 팟은 전략이 다르며, 플랍이 빅블라인드에 유리하다는 기준에 대해 질문이 나옵니다. 빅블라인드가 특정 플랍에서 에퀴티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 즉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따지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5-6 보드조차 빅블라인드의 전체 레인지와 언더더건의 레인지를 비교하면 에퀴티가 48% 정도로, 55%를 넘는 레인지 어드밴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빅블라인드는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없으니 동크벳 빈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크벳이 가능한 보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5-6처럼 하위 래핑 보드에서 빅블라인드가 더 많은 스트레이트와 투페어, 셋 등 강한 핸드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보드에서는 상대가 언더더건이면 그 레인지에 6x, 7x, 8x 같은 핸드가 거의 없어서, 빅블라인드가 더 다양한 조합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동크벳은 보통 1/3 팟 사이즈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빅블라인드가 4, 5, 6 등 미들페어, 바텀페어, 백도어 드로우 등 다양한 핸드로 밸류와 블러프를 섞어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GTO 기준에서는 동크벳을 60%까지도 하라고 나오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대부분 탑페어, 특히 키퍼가 약한 탑페어로 동크벳이 많이 나옵니다.

동크벳을 치는 주요 심리는 “내가 플랍에 이겼으니 주도권을 뺏어오고 싶다”는 생각과, 턴·리버에 오버카드가 떨어질 때 불편함을 미리 해소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동크벳이 탑페어에만 집중되면 레인지가 불균형해져 상대에게 익스플로잇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밸류와 블러프를 적절히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크벳의 EV(기대 수익)는 프리플랍 레인지, c-bet 전략, 3-bet 대응 전략 등 다른 전략적 요소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득도 쌓아가야 하는 토너먼트 포커 특성상, 이런 근소한 플러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투오버 같은 핸드로 잘 콜하지 않는다면 동크벳 EV가 더 높아지고, 상대가 쉽게 오버폴드한다면 동크벳을 더 넓게 활용해도 좋겠죠.

동크레인지는 보통 밸류와 블러프가 혼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밸류만으로 동크벳을 하면 상대는 투오버는 폴드, 오버페어는 콜 등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차 스트레이트 드로우,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 등 블러프 핸드도 반드시 레인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크벳을 받았을 때 언더더건 입장에서는 꽤 넓은 레인지로 콜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필드에서는 대부분 오버폴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잇 관점에서는 동크벳이 좋은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동크벳을 너무 단순하게 밸류 핸드만 치면 쉽게 읽히고 카운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크벳을 할 때는 상대의 프리플랍 포지션에 따라 동크에 사용할 수 있는 보드와 핸드가 달라집니다. 언더더건은 6x, 7x, 8x 등이 거의 없지만, 컷오프나 버튼은 더 다양한 미들 카드 핸드가 포함되어 동크벳 빈도가 낮아집니다. 즉, 상대의 오픈 포지션이 앞일수록 동크벳을 활용할 수 있는 보드는 제한적입니다.

멀티웨이에서는 빅블라인드 방어 핸드 선택도 훨씬 타이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4 수딧 같은 핸드는 플랍에서 텐이 맞아도 키퍼가 약해 앞선 포지션 콜러들의 K-10, Q-10, J-10 등 높은 키퍼에게 도미네이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멀티웨이 팟, OOP(포지션이 없는 상황)라면 플레이어빌리티가 떨어지므로 타이트한 셀렉션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크벳은 주로 다이내믹한 로우보드에서, 밸류와 블러프를 적절히 섞어 활용해야 하며, 탑페어나 미들페어로만 치는 전략은 상대에게 쉽게 읽히고 익스플로잇당할 수 있습니다. 동크벳 자체가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상대가 오버폴드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충분히 익스플로잇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웨이 팟에서는 방어 범위를 더욱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익스플로잇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튼과 빅블라인드 구도에서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플레이어의 스타일은 4가지로 분류되곤 하는데, 이는 도일 브런슨 시대부터 쓰여온 오래된 개념입니다. 마치 MBTI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일정 부분 적용되는 것처럼, 이 분류 역시 지금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이때 '루즈-타이트', '패시브-어그레시브'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특히 레인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패시브와 어그레시브의 차이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펜더 입장에서 플레이어가 패시브하다면, 보통 폴드를 많이 하거나 콜 위주로 대응하고, 레이즈를 잘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는 레이즈 빈도가 높고, 공격적인 액션이 많습니다.

버튼 대 빅블라인드 상황에서 체크 레이즈 빈도는 대략 17% 정도가 적정 밸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레이즈가 더 많다면, 디펜더가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할 때 체크 레이즈를 많이 하는 상대는 레인지가 상당히 직관적일 때가 많고, 특히 하위 블라인드에서는 체크 레이즈가 거의 닷 플러시 같은 아주 강한 핸드에서만 나오곤 합니다. 즉, 블러프 체크 레이즈가 드물기 때문에 애매한 핸드는 과감히 폴드하는 것이 플러스 EV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크 레이즈 빈도가 언더블러프(블러프가 적음)라면, 우리는 오버폴드(과하게 폴드)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체크 레이즈를 거의 하지 않는 패시브 디펜더라면, 시베팅 빈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TO 기준 15%만 체크 레이즈해야 할 상황에서 실제로는 5%만 체크 레이즈가 나온다면, 나머지 핸드들은 전부 체크-폴드 또는 체크-콜로 빠집니다. 이런 상대에게는 3분의 1 팟 사이즈로 거의 모든 핸드로 시베팅을 해도 잘 먹힌다는 뜻입니다.

특히, 로우 스테이크에서는 블라인드 방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100방 이상에서도 이런 전략이 잘 통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대부분의 풀에서는 패시브한 디펜더가 많기 때문에, 버튼 대 빅블라인드 구도에서 더 자주 시베팅해도 됩니다.

시베팅 사이즈에 대해서도 언급해보자면, 보드에 따라 3분의 1, 3분의 2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텐, 킹텐, 퀸텐, 잭텐과 같은 페어류 핸드는 3분의 1 팟 시베팅이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파켓들은 이 배팅에 콜을 하게 되죠. 반면, 상대가 이런 배팅에 쉽게 콜만 하고 턴까지 본다면, 탑페어 핸드로는 굳이 작은 사이즈로 배팅할 필요 없이, 3분의 2 사이즈 등 더 크게 배팅해서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GTO 상에서는 특정 보드에서 3분의 2 팟으로 배팅했을 때 파켓류 핸드들은 많이 폴드합니다. 그러나 실제 플레이어들은 종종 모든 파켓으로 턴까지 콜하려는 경향이 있어, 탑페어 핸드로 큰 배팅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체크 레이즈 빈도와 관련해서는, 상대가 작은 시베트(3분의 1 등)를 했을 때 블러프 체크 레이즈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배팅 사이즈가 커질수록 체크 레이즈는 거의 밸류 위주로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 플레이어들은 큰 배팅에 블러프 체크 레이즈를 거의 시도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이용해 배팅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체크 레이즈 레인지 구성 역시 중요합니다. 빅블라인드 디펜더의 경우, 체크 레이즈 레인지는 밸류와 블러프가 적절히 섞여야 하지만, 실제 풀에서는 밸류 체크 레이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GTO에서는 2페어 플러스 같은 강한 핸드와 함께 백도어 드로우나 바텀 페어 등으로 블러프 체크 레이즈를 적절히 섞어줍니다.

반면, 마지널한 메이드 핸드(7,7~잭스, 퀸스 등)나 세컨드 페어 등으로는 체크 레이즈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핸드들로 체크 레이즈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의 콜 레인지가 탑페어 플러스 등 강한 핸드 위주로 좁혀져서, 우리 스스로를 아이솔레이션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택 크기에 따른 전략 변화도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딥스택(예: 100BB)에서는 탑페어로 체크 레이즈 빈도가 낮아지지만, 20BB 이하의 쇼스택 상황에서는 탑페어로도 과감하게 체크 레이즈(혹은 올인)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BB 남은 상황에서 탑페어로 체크 레이즈 올인을 하는 것은 오버카드가 떨어지는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팟을 가져오는 데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빅블라인드에서 체크 레이즈 레인지는 폴라라이징이 핵심이며, 마지널한 메이드 핸드로는 체크 레이즈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패시브한 디펜더를 상대로는 시베트를 더 자주 해서 밸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게임트리와 포지션, 스택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MTT 홀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익스플로잇 전략 만들기

빅블라인드 디펜드를 너무 집착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해 과도하게 플로팅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핸드로까지 디펜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향은 플로팅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쿼텐처럼 연결성이 별로 없는 핸드로도 체크레이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체크레이즈 후보가 아닙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플레이어들, 즉 어그레시브한 타입들이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빅블라인드에서 5-7-4 같은 보드에서 체크레이즈를 과감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보드는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3-6 수딧, 6-8 수딧 등 다양한 강한 드로우 핸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레이즈에 유리한 보드입니다. 이럴 때, 에이스잭, 에이스퀸, 킹퀸 같은 오버카드 핸드들은 체크레이즈를 맞으면 쉽게 폴드하게 됩니다. 결국 빅블라인드는 상대의 강한 파켓 외에는 폴드를 유도하거나, 원오버와 백도어 플러쉬드로우 등의 에퀴티를 가진 채로 승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체크레이즈의 핵심은 GTO 기준으로 에퀴티가 충분하거나, 상대가 충분히 많은 핸드를 폴드시킬 수 있을 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 핸드나 체크레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에이스듀스 수딧이나 에이스식스 수딧, 또는 강한 드로우가 동반된 핸드들이 체크레이즈의 좋은 후보입니다. 이런 핸드들은 체크레이즈 후에도 턴, 리버에서 에퀴티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쿼텐 움푹처럼 특별한 드로우도 없는 핸드로는 체크레이즈 후에 턴, 리버에서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턴에서 추가 베팅을 이어갈지 말지는, 턴 카드가 내 에퀴티에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의 레인지에 유리하게 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쉬드로우나 양차가 완성되면 강하게 베팅을 이어가도 좋지만, 오버카드가 떨어져서 내 핸드나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패시브하게 체크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토너먼트 구간에 따라 전략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머니인 직전이나 파이널 테이블 직전처럼 버블 구간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올인을 쉽게 못 하기 때문에, 시벳을 더 자주, 더 가볍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택이 얇고 올인 승부가 쉽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애매한 핸드로 무지성 시벳을 자제하고, 체크백 빈도를 높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어그레시브한 디펜더를 상대할 때는, 애매한 핸드(예: 9파켓 등)로는 굳이 시벳을 하지 않고, 강한 핸드(잭스, 퀸스, 에이스텐 등)로는 올인이 나오더라도 콜할 준비를 합니다. 100BB처럼 딥스택일 때와 쇼스택일 때 전략도 달라지며, 딥스택에서는 체크레이즈 블러프가 더 많이 나오고, 쇼스택일수록 밸류 비중이 높아집니다.

플러쉬 드로우 같은 에퀴티 높은 핸드들은 체크콜로 폴라프에서 많이 이어가고, 넷 플러쉬 드로우처럼 매우 강한 드로우는 체크레이즈를 더 많이 시도합니다. 세컨드 페어나 애매한 핸드들은 오히려 체크콜로 에퀴티 실현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쉬 드로우는 히트 여부에 따라 승패가 명확히 갈려 에퀴티 실현이 쉽지만, 세컨드 페어 같은 핸드들은 턴, 리버에 오버카드가 떨어지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대가 트래핑이나 슬로우 플레이를 좋아하는 패시브 타입이라면, 밸류 벳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강한 핸드로도 체크백을 자주 합니다. 이런 경향은 블라인드 대 블라인드 구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에이스가 맞았을 때도 체크백만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딥스택에서는 굳이 슬로우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으니, 이런 트래핑 성향을 익스플로잇하기 위해서는 드로우로 과도하게 벳팅하지 않고, 에퀴티가 명확한 상황에서만 벳팅 빈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빅블라인드 디펜스와 체크레이즈, 시벳 전략 모두 상대의 성향, 스택, 보드 텍스처, 토너먼트 구간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패시브하거나, 너무 어그레시브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브레이크와 가속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높은 EV를 기대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플랍체크 넘어가면 턴에 먼저 베팅해도 되나요?

- 프로브벳

이전 영상에서는 오픈 레이즈를 한 플레이어가 플랍에서 어떻게 c-bet(컨티뉴에이션 벳)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빅블라인드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플랍 어그레서가 플랍에서 c-bet을 하지 않고 체크로 넘어갔을 때, 즉 플랍이 체크-체크로 흘러간 상황에서의 게임 트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빅블라인드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빅블라인드 방어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플랍에서 c-bet을 하지 않았다면 게임 트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럴 때 빅블라인드의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턴에서 배팅(Prove-bet)하는 것, 둘째는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Prove-bet은 프리플랍 어그레서가 플랍에서 c-bet을 하지 않고 턴에서 체크로 넘어갔을 때, 오프 더 포지션(여기서는 빅블라인드)이 주도적으로 배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의 체크백 레인지가 보호되지 않는, 즉 강한 핸드로 체크백을 잘 하지 않는 경우 빅블라인드는 높은 빈도로 Prove-bet을 해서 팟을 자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체크백을 자주 섞거나 밸런스 있게 플레이한다면, 무작정 Prove-bet을 하면 오히려 역이용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Prove-bet의 사이징과 레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턴 카드가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유리하게 떨어졌다면, 작은 사이즈의 Prove-bet을 높은 빈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턴이 상대(프리플랍 어그레서)의 레인지에 유리하게 떨어졌다면, Prove-bet 빈도는 낮추고 오히려 큰 사이즈의 배팅이 일반적입니다. 큰 사이즈를 사용할 때는 매우 강한 핸드와 매우 약한 핸드를 섞어서, 레인지 폴라라이징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강한 밸류핸드와 완전한 블러프를 조합해 큰 사이즈로 배팅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버튼에서 오픈 레이즈가 나오고 빅블라인드가 5-6 하트로 꼰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플랍은 K-5-2 레인보우, 빅블라인드는 체크, 버튼도 체크백. 턴에 4 다이아가 떨어지면 이 카드는 빅블라인드에게 좋은 카드입니다. 이런 경우, 빅블라인드는 5-6 하트 같은 미들 페어나, 7 파켓 같은 미들파켓, 마지널 키커의 탑페어(예: K-8 수딧) 등으로 높은 빈도로 Prove-bet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체크백 레인지에 탑페어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다양한 미들 페어와 세컨 페어, 미들 파켓 등으로 팟을 공격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턴에 쿼이 떨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프리플랍 어그레서(버튼)의 체크백 레인지에 쿼x 핸드(예: AQ, QJ, Qx 수딧 등)가 많으므로, 이때는 빅블라인드가 미들페어나 마지널 핸드로 Prove-bet을 자주 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밸류 레인지는 투페어, 셋, 강한 탑페어로 좁히고, 블러프 레인지 역시 에퀴티 기반(플러쉬드로, 스트레이트드로 등)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러프의 경우, 드로우가 있는 에퀴티 기반 블러프(뽕뽕, 양차 등)와 아무것도 없는 에어블러프(특히 블락커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5-2-4 보드에서 Q-3 수딧, J-3 수딧처럼 양차가 있는 핸드나 플러쉬 드로우가 있는 핸드로 Prove-bet을 할 수 있습니다. 블락커 개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QJ를 들고 있다면 상대방의 QJ 보유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블러프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핸드가 상대의 오토폴드 레인지를 블락하지 않는(즉, 언블락하는) 핸드일수록 블러프에 적합합니다.

사이징 전략도 중요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은 단순화를 위해 원사이징(한 가지 배팅 사이즈만 사용하는 전략)이나 투사이징(강한 핸드로 큰 사이즈, 약한 핸드로 중간 사이즈 등 두 가지 사이즈를 병행)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사이징 전략에서는 미들 핸드로는 팟의 50%, 강한 핸드나 강력한 드로우로는 오버벳(팟의 133% 등)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강한 핸드로도 작은 사이즈를 일부 섞어주어 레인지 프로텍션을 신경 써야 합니다.

플랍이 7-6-2 레인보우로 떨어졌다면, 이건 빅블라인드에게 아주 좋은 플랍입니다. 이런 경우 턴에 4가 떨어지면, 빅블라인드는 거의 모든 미들 페어, 세컨 페어, 바텀 페어, 그리고 각종 드로우, 심지어 아무런 에퀴티 없는 핸드(예: K-9 수딧, Q-10 오프수딧 등)로도 Prove-bet을 넓은 레인지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랍이 9-7-4 레인보우처럼 중립적인 보드라면, 너무 넓은 Prove-bet 레인지는 오히려 위험하니 블러프는 드로우 위주로 제한하고, 밸류/블러프 레인지 모두 조금 좁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턴에 오버카드(예: Q, K, A 등)가 떨어졌을 때 빅블라인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체크만 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 역시 익스플로잇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드로우나 페어, 심지어 오버카드가 맞았을 때도 충분히 Prove-bet을 섞어야 합니다. 상대의 플랍 c-bet 빈도와 레인지, 체크백 빈도를 항상 고려해서 Prove-bet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턴에서의 Prove-bet 전략은 플랍에서 프리플랍 어그레서가 체크백했을 때 빅블라인드가 어떤 핸드로 어떤 빈도, 어떤 사이즈로 배팅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을 잘 구축한다면, 상대가 플랍에서 c-bet을 포기한 순간부터 빅블라인드는 적극적으로 프리플랍 어그레서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몰빅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라인드 vs 블라인드, 특히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 상황에서 수강생의 플레이를 분석합니다. SB와 BB 싸움에서는 레인지가 매우 넓고, 종종 치열한 승부가 벌어집니다. 특히 빅블라인드는 유일하게 IP(인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구조라서 여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vb(블라인드 대 블라인드) 포스트플랍의 기본 개념,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전형적인 사고 과정을 어떻게 익스플로잇할지, 또 블러프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들을 다룹니다.

사례로,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스페이드 8 클로버를 들고 100BB 스택을 가진 수강생이 등장합니다. 상대는 스몰블라인드에서 2BB로 오픈 레이즈를 했고, 스몰블라인드에서 오픈하는 핸드는 파켓, 수딧 커넥터 등 쓸만한 핸드들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상 SB 레인지는 굉장히 넓고, 때로는 완전 쓰레기 핸드까지 포함될 정도입니다. 많은 레크레이셔널 플레이어들이 SB에서 오픈 레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실수에 가깝습니다. 이론적으로 GTO(게임이론 최적)에서는 거의 모든 핸드를 림프(콜)하고, 강한 핸드만 오픈 레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핸드도 종종 림프에 포함시키는 균형을 맞춥니다.

스몰블라인드에서 림프를 많이 하는 주요 이유는 빅블라인드가 아이솔레이션 레이즈(아이소)를 매우 넓은 레인지로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SB가 오픈 레이즈를 하면 BB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핸드로 콜이 가능해지고, SB에서 림프를 하면 BB는 약 40% 정도의 핸드로 아이소를 합니다. 나머지 60%는 체크합니다. BB가 아이솔레이션 레이즈를 하는 레인지는 강한 핸드와 아주 약한 핸드가 섞여 있으며, SB도 이에 대응하여 강한 핸드와 약한 핸드를 모두 림프에 포함시킵니다.

SB에서 수딧 핸드나 미들 커넥터, 파켓 같은 핸드들은 림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픈 레이즈 후 3벳(릴레이즈)을 당하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플랍을 싸게 보고 에쿠티 실현을 노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반면, 아주 안 좋은 핸드들은 폴드하면 되고, 에어라인이나 킹스 같은 프리미엄 핸드는 림프 레이즈(트랩)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림프-콜-폴드로 레인지를 나누면 BB 입장에서 쉽게 익스플로잇 당하지 않습니다. BB가 아이소를 무분별하게 하기도 어려워지죠. 물론 상대가 아이솔레이션을 잘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아주 타이트하거나 초보인 경우에는 SB에서 오히려 좋은 핸드로 레이즈하고 나쁜 핸드는 림프하는 쪽이 더 높은 EV(기대값)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오버폴드를 자주 하는 환경, 즉 버블 직전과 같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선 SB에서 아주 넓게 오픈해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포스트플랍 전략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B가 체크하면 BB는 애니핸드로 작은 사이즈로 시벳을 자주 시도할 수 있는데, 필드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GTO만큼 넓게 시벳하지는 않습니다. SB가 체크레이즈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 BB가 무작정 시벳을 많이 할 수 없게 됩니다. 체크레이즈 레인지는 강한 밸류핸드(셋, 투페어, 탑페어 좋은 �커)와 에퀴티는 있지만 콜하기 애매한 드로우, 그리고 쇼다운 밸류가 없는 블러프성 핸드가 고루 섞여야 합니다.

이처럼 림프 레인지와 체크레이즈 레인지를 균형 있게 운영하면 상대가 함부로 익스플로잇 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상대가 특정 전략에 익숙하지 않거나 취약한 경우에는 그 약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덤 MTT의 bvb 구간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이해와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스몰빅싸움이 제일 쉬웠어요

2BB 오픈이 나왔고, 오픈 레이즈에 사용할 만한 핸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한 핸드들, 수리 커넥터, 4바퀴, 5바퀴, 6바퀴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2보드에서 잭 구위로 떨어졌고, 보드는 투 레인보우 상황인데 체크가 나왔어요. 어떤 핸드들이 여기서 체크를 할까요? 플러시 드로우가 있을 수 있겠고, 예를 들어 낮은 스페이드 수리 같은 핸드, 예를 들어 10-7 스페이드 수리 등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드로우 핸드들은 대부분 배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체크하는 핸드는 애매한 파켓이나 쇼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3파켓, 4파켓, 때로는 잭 파켓도 트래핑을 위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플랍에서 체크하는 핸드는 대체로 미스난 핸드거나 쇼다운 밸류가 애매한 핸드, 또는 트랩을 노리는 경우고, 배팅하는 핸드들은 완전히 강하거나 플러시 드로우처럼 액티브하게 플레이할 만한 핸드입니다. 실전에서 오픈하고 잭 구위 플랍이 나오면, 쿼텐 같은 핸드로는 대부분 배팅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플랍에서 잭이나 9를 맞춰도 한 번씩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보드가 투톤이거나 투 레인보우 등 레인지에 따라 배팅 빈도는 달라지지만, 대략 60% 정도만 배팅하는 경우가 많죠. 체크를 하면 보통 상대의 레인지도 미스난 핸드나 애매한 쇼다운 밸류, 혹은 아주 강한 트랩 핸드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이스 하이로도 가끔 쇼다운 밸류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킹텐, 마텐, 텐팔 양차, 그리고 에이스5, 에이스6, 에이스4, 에이스3 같은 핸드들은 대부분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는 핸드들은 에이스킹, 에이스퀸, 에이스잭, 에이스텐 등입니다.

특히 에이스 스페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플러시 블락커 역할이 커집니다. 플러시 드로우로 플레이할 때 프리 플랍 오픈 레이즈를 한 핸드들 중에서 에이스X 수딧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스 스페이드를 들고 있으면 상대의 넷 플러시 드로우 가능성을 반 이상 막아줍니다. 이런 블락커를 들고 있으면 리버에 세 번째 스페이드가 떠도 상대가 넷 플러시를 가졌을 확률이 줄어들어서, 블러프를 시도하기에 좋은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플러시 드로우를 잡았을 때 플랍이나 턴에서 항상 배팅을 하고, 넷 플러시 드로우를 들고 체크백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GTO(이론적 최적 전략)에서는 넷 플러시 드로우도 일부 체크백을 섞어서 상대의 익스플로잇을 방지합니다.

플러시 드로우뿐만 아니라 잭셋, 탑셋 등도 가끔 체크백을 섞어야 하고, 블러프 핸드로는 쿼텐, 텐팔 같은 양차, 57 스페이드, 64스페이드 같은 낮은 플러시 드로우도 일부 체크백을 섞어줍니다. 반대로 에이스3스페이드 수딧 같은 핸드들은 대부분 배팅을 하는데, 이는 상대의 약한 에이스X 핸드들을 폴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버에서 블러프를 할 때는 자신의 스토리텔링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랍에서 배팅하지 않고 턴에서 갑자기 배팅을 시작하면 스토리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플러시 드로우로 리버에 블러프를 하고 싶다면 플랍부터 꾸준히 배팅을 이어가는 라인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스토리상 맞지 않게 플레이하면 상대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자신이 블러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도 똑같이 플레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에 오버배팅을 해도 "이건 양차 블러프일 거야"라고 읽고 히어로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리버 오버배팅은 거의 95% 이상이 밸류 베팅이고, 블러프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오버배팅보다는 150% 정도의 사이즈가 적절하게 블러프와 밸류가 혼합된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리뷰에서 만약에 상대가 텐파켓을 들고 있었으면, 결과적으로 텐파켓은 여기서 탑 핸드에 가깝고, 대부분의 마지널한 핸드나 애매한 파켓을 상대로 블러프를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파켓, 7파켓, 4파켓 같은 핸드들, 에이스킹, 에이스퀸, 에이스텐, 킹퀸 같은 핸드들이 주요 블러프 타겟입니다. 너무 강한 핸드를 상대로는 블러프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블러프의 메리트는 필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상대가 이상하게 콜을 잘 한다면, 블러프의 기대값이 떨어지고, 반대로 상대가 머니 버블 직전 등 중요한 상황에서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블러프가 더 잘 먹힙니다. 하지만 본문 스폿은 토너먼트 초반이어서 블러프의 효용이 크지 않으므로 6점 만점에 4점 정도, 즉 중간 등급의 블러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러프를 하고 쇼다운에서 핸드를 공개할 때는 자신감 있게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레절레 하면서 창피해하거나 민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스토리로 설계된 블러프라면 상대가 콜을 해도 나쁜 플레이가 아니며, 오히려 "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블러프를 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핸드나 다음 토너에서도 흔들림 없는 멘탈이 필요하며, 항상 핸드를 오픈한다고 생각하고 플로우 차트에 따라 논리적으로 블러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인만의 경험을 쌓고, 5~10번 정도 복기 연습을 해보면 블러프 스폿에서의 선택지가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3벳팟 플레이

이번 영상에서는 3벳팟에서 플랍을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벳팟은 싱글 레이즈 팟만큼 자주 등장하는 스팟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3벳팟 전략,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플랍 C벳 전략을 정확히 익히두면, 상대가 어려워하는 3벳팟을 자주 만들 수 있어 상대를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3벳팟 플랍 C벳 전략은 싱글 레이즈 팟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예시로, 언더 더 건 플러스 원에서 빌런이 오픈, 빅블라인드에서 히어로가 퀸스로 3베를 했다고 합시다. 플랍이 킹클럽, 텐다이아, 구스페이드로 떨어졌다면, OOP에서 하이퍼어로 3베를 하고 플랍에 오버카드가 나온 상황을 모두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플랍에 C벳을 하자니 오버카드가 부담스럽고, 체크를 하자니 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체크하면 블러프에 취약한 핸드로 보일 수 있죠.

이번 영상의 초점은 우리가 항상 하는 '벳'이라는 액션의 성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벳을 할 때는 반드시 '벨류벳인지, 블러프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벳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일단 벳을 하지만, 왜 벳을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이후 스트리트에서 플레이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퀸스를 들고 있다면 이게 벨류벳일까요, 블러프일까요? 사실 퀸스는 그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퀸스로 킹 원페어 같은 더 좋은 핸드를 fold시킬 수는 없으니 블러프 액티비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잭스, 텐엑스, 나인엑스처럼 우리보다 약한 핸드들에게 콜을 받아낼 수 있으니, 벨류벳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상대가 레이즈하면 퀸스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GTO(게임 이론 최적화)는 이런 상황에서 작은 사이즈의 레인지 벳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BB 대 UTG+1 3벳팟에서 BB의 플랍 전략은 전체 핸드의 약 75% 빈도로, 팟의 25%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로 C벳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플레이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퀸스처럼 벨류와 블러프의 중간에 걸친 핸드는 플랍에서 작은 벳을 하거나 체크를 섞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이스 퀸 수딧 같은 핸드는 이 플랍에서 블러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약한 핸드가 거의 콜하지 않으니, 벨류가 아니고, 아웃과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 거샷이 있는 블러프 성향의 벳이죠. 즉, 블러프를 할 때는 ① 에퀴티가 있는지, ② 쇼다운 벨류가 없는지, ③ 나보다 더 좋은 핸드를 fold시킬 수 있는지를 항상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3벳팟에서 레인지 어드밴티지(내가 전체적으로 강한 핸드가 더 많은 상태)가 있으니, 킹이 깔린 보드에서는 3베를 한 쪽이 유리합니다. 상대의 콜 레인지엔 킹X가 적게 포함되어 있으니깐요. 이런 경우 큰 사이즈(팟의 50%~75%)로 배럴을 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텐스(10페어)처럼 극강의 벨류 핸드라면 오버벳(팟 오버 125%~150% 등)까지도 가능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킹스나 텐스로도 체크를 하며 벨류를 놓치고, 리버에 드로우가 맞으면 그때서야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익을 놓치는 플레이입니다. 트랩 플레이는 실전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으며, 벨류핸드는 적극적으로 배팅해 최대 가치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블러프를 할 때는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 거샷 등 에퀴티가 있는 핸드로만 해야 하고, 완전 에어(5-6수딧처럼 아무것도 없는 핸드)로는 거의 블러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이스 퀸처럼 원오버, 거샷, 백도어 플러시가 있는 핸드들은 블러프의 최적 후보입니다.

블러프 배럴을 이어나갈 때는, 다음 스트리트에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런아웃(턴, 리버 카드)이 깔릴 때만 밀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턴에 텐이 떨어진다면 이걸 상대가 텐X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런아웃이 되어 배럴 빈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배팅을 할 때마다 항상 "이게 벨류벳인가, 블러프인가?"를 따져보고, 블러프라면 에퀴티가 있는지, 쇼다운 벨류가 없는지, 더 나은 핸드를 fold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스트리트에서 쉽게 fold할 수 있는 핸드로 블러프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목적이 분명한 배팅만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레크와 레귤러의 차이는 바로 이 목적성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논리가 없이 감으로, 혹은 모순적인 이유로 배팅을 하다 보니 수익을 놓치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조언에 귀를 닫고, 본인의 핸드별로 목적이 분명한 배팅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제안한 숙제는 자신이 플레이한 5개의 핸드에 대해, 각 배팅이 벨류벳인지 블러프인지, 목적성을 명확히 리뷰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포커 실력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턴배럴 전략

지난 영상에서는 플랍 텍스처별 시벳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플랍에서 시벳을 했는데 빅블라인드가 콜을 했다면, 그 다음이 고민입니다. 플랍에서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판단해 배팅을 했는데, 상대가 콜을 한 상황에서 턴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카드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까요? 계속 배럴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체크백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랍 시벳 전략은 기본적으로 익숙하지만, 턴에서 어떻게 배럴을 이어갈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턴 카드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는 플랍에서 당장 좋아 보이는 카드 위주로 콜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는 오버카드나 턴, 리버를 대비하는 카드로는 잘 콜하지 않습니다.

또한 플랍에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로 시벳을 했느냐에 따라, 턴에서 상대의 콜 레인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플랍에서 33% 사이즈로 시벳했을 때와 66% 사이즈로 시벳했을 때, 상대가 컨티뉴하는 레인지에 AX나 KX 같은 핸드나 남아있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플랍에서 작은 사이즈로 시벳했다면, 턴에 우리 에퀴티가 발전하는 카드에서는 배럴을 이어가고, 상대 레인지에 도움이 더 되는 카드가 떨어지면 체크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강생과 이야기한 예시를 들어 보면, 버튼에서 킨텐 수딧을 들고 플랍이 퀸하트, 9다이아, 6스페이드로 떨어졌을 때 보통 33% 사이즈로 시벳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튼이 빅블라인드보다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있고, 자주 시벳하는 보드일수록 작은 사이즈를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 보드에서 9이나 6 같은 미들, 바텀페어로도 잘 콜하기 때문에, 33% 사이즈로는 거의 폴드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반면 66% 사이즈로 시벳하면 상대가 약한 파켓이나 일부 에이스X는 폴드하게 됩니다. 즉, 큰 사이즈를 쓸수록 상대 레인지가 더 강해지고, 폴드하는 핸드도 많아집니다.

이런 게임트리에서는, 플랍에서 어떤 배트 사이즈를 썼느냐에 따라 턴에서 타겟팅해야 하는 레인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플랍 33% 배트에는 에퀴티가 낮은 정크핸드나 일부 에이스X, 잭파이버 같은 핸드들을 정리할 수 있고, 66% 배트에는 약한 파켓이나 바텀페어까지도 폴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GTO처럼 완벽하게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플로잇 전략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플랍에서 33% 작은 사이즈에도 약한 파켓을 폴드하는 경향이 있으면, 더 자주 작은 배트로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큰 배트에도 잘 콜한다면, 밸류 핸드로는 사이즈를 더 키워서 EV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밸류 핸드로 충분히 크게 배팅하지 않고, 블러프는 블럭 사이즈로 치는 등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향이 많으니, 이런 점을 익스플로잇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랍에서 체크레이즈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체크레이즈는 대부분 밸류에 치우쳐 있으므로, 우리도 과감하게 오버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러프 빈도는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플랍에서 체크레이즈를 콜했을 때, 턴에서 상대가 체크로 돌아온다면 그 레인지는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밸류 핸드나 쇼다운 밸류가 있는 핸드로 체크백을 하거나, 블러프로 다시 한 번 압박을 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홀덤 MTT에서 플랍과 턴의 배트 사이즈, 그리고 상대의 콜 레인지에 따라 다양한 게임트리가 형성되므로, 스탭 사이즈나 SPR, 그리고 ICM 상황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EV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익스플로잇 전략을 섞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한다면, 플랍에서 킨텐 수딧을 들고 플레이할 때도 자신 있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턴에서도 동크벳을 할 수 있다고?

이번 영상에서는 빅블라인드의 포스트플랍 전략, 특히 턴 동크벳에 대해 다룹니다. 이전에 플랍 동크벳 레인지 구성에 대해 설명했으니, 이번엔 턴에서 빅블라인드가 동크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빅블라인드에서 6다이하 6수딧을 들고 있고, 하이잭 포지션에서 2BB로 오픈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빅블라인드에서 디펜스하고, 플랍은 잭-5-4 레인보드로 떨어집니다. 이 보드에서는 빅블라인드가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없으므로 플랍에서 레인지 체크를 하고, 상대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 사이즈로 시벳을 합니다. 히어로가 콜을 하고 턴에 3스페이드가 떨어지면, 이 카드는 하이잭보다는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더 유리한 카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블라인드는 작은 사이즈(예: 20%~25% 팟)로 턴 동크벳 레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크벳을 했을 때 상대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파켓, 8파켓, 9파켓, 10파켓 같은 핸드들은 폴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밸류벳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체크 대신 턴에서 동크벳을 하나면, 우리가 체크했을 때 이런 미들 파켓들이 더블 배럴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이런 핸드로 더블 배럴을 자주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빅블라인드 레인지에는 5-4 투페어, 5-3 투페어, 3-4 투페어, 6-7, 2-6 수딧 같은 다양한 투페어와 스트레이트 드로우, 하위 페어, 오픈엔디드, 백도어 드로우 등이 많습니다. 3스페이드처럼 빅블라인드에게 유리한 카드는 동크벳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 GTO 솔버를 돌려보면, 3스페이드 턴에서 빅블라인드는 60% 이상의 빈도로 동크벳을 하라고 나옵니다. 사이즈는 대체로 20%~50% 팟이 추천되고, 동크벳은 하프팟 미만의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분석은 40BB 스택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어떤 핸드로 동크벳을 구성할 수 있는지 보면, 2-6 같은 스트레이트, 6-7 같은 오픈엔디드, 5-3, 4-3, 5-4 같은 투페어, 7-8 수딧, 2-3 수딧 같은 드로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체크할 경우, 상대가 체크백해서 밸류를 놓칠 수 있으니, 직접 작은 배트로 밸류와 블러프를 챙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동크벳에 대해 상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콜할 핸드가 많고, 폴드할 핸드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8.5%만 폴드하고 대부분은 콜이 나옵니다. 따라서 6-7, 2-6 같은 핸드로 먼저 배트해 밸류를 실현하고, 7-8 수딧, 2-3 수딧 같은 블러프 핸드도 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크벳에 레이즈가 들어오면, 간단히 폴드하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블락벳 성격으로도 동크벳을 쓸 수 있습니다. 5-7 수딧, 5-6 수딧, A-5 수딧, K-5 수딧, Q-5 수딧 등 다양한 5X, 4X, 3X 핸드들이 모두 동크벳 레인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7-7, 8-8, 9-9 같은 미들파켓도 동크벳 레인지에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전 토너먼트에서 실제로 동크벳에 강하게 레이즈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밸류 있는 핸드로 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블락벳이나 밸류벳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BB로 동크벳을 하면 8파켓, 9파켓, 10파켓도 거의 항상 콜만 하며, 6파켓, 7파켓 같은 핸드로 레이즈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3스페이드가 아니라 5스페이드, 4스페이드, 6스페이드가 턴에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넓은 빈도로 동크벳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도 빅블라인드 레인지의 에퀴티가 50%를 넘거나 근접하게 형성됩니다. 6이 떨어진 런아웃은 특히 빅블라인드에 유리하고, 이때도 70%에 가까운 빈도로 동크벳이 가능합니다.

즉, 턴에서 3, 4, 5, 6 같은 로우 카드가 깔리는 상황에서는 빅블라인드가 작은 사이즈로 넓은 동크벳 레인지를 활용하는 것이 GTO적으로도, 실전 익스플로잇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드로우, 투페어, 밸류 및 블러프 핸드로 직접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며, 작은 사이즈로 효율적으로 밸류를 실현하거나 상대의 약한 핸드를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cbet을 할 수 있는 보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플랍 형태에 따른 전략과, 우리가 가진 핸드에 따라 어떻게 베팅 사이즈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포스트플랍에서 플랍 텍스처에 대한 인지 능력을 키우면, 상대방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플랍에서의 C벳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플랍에서 C벳을 3분의 1 팟 사이즈로 고정해서 사용하지만, 왜 그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만든 논리로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홀덤을 잘하고 싶다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히어로가 텐파켓(10-10)을 들고 40BB 스택에서 2BB로 오픈레이즈를 했고, 빅블라인드가 콜하여 플랍이 9하트, 8하트, 4스페이드로 깔린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보드는 얼핏 보면 빅블라인드에게 좋은 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오픈 레이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C벳을 해야 하며, 핸드에 따라 베팅 사이즈를 결정해야 합니다.

텐파켓 같은 핸드는 플랍에서 가장 크게 베팅할 수 있는 핸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히어로는 팟의 83%에 가까운, 거의 팟벳 사이즈로 C벳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베팅 사이즈를 보고 놀라지만, GTO 관점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이 보드는 다이나믹한 보드로, 텐파켓이 현재는 베스트핸드일 확률이 높지만, 턴이나 리버에 오버카드가 깔리거나 드로우가 완성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미리 에퀴티를 보호하고 밸류를 뽑아내기 위해 큰 베팅이 필요합니다.

상대 빅블라인드는 잭9 수딧 같은 탑페어, 킹8 같은 세컨페어, 잭10 같은 오픈엔디드, 퀸잭, 퀸10 같은 각종 드로우와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로도 콜할 수 있습니다. GTO 솔버 차트를 보면, 이런 보드에서는 20%나 33% 같은 작은 사이즈의 C벳 빈도가 거의 없고, 대부분 팟 사이즈에 가까운 큰 베팅을 선택합니다. 특히 텐파켓부터 에이스까지의 오버페어, 그리고 9x, 8x 콤보, 잭10, 퀸10, 퀸잭 같은 드로우 핸드들이 큰 사이즈로 C벳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반면, 에이스킹이나 에이스퀸, 에이스잭 같은 오버카드 핸드들은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빈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이들 핸드들이 쇼다운 밸류는 있지만, C벳 후 상대가 레이즈하거나 콜했을 때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경우엔 C벳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잭10, 퀸10, 퀸잭 같은 핸드들은 쇼다운 밸류는 없지만 오픈엔디드나 거샷 등 에퀴티가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C벳을 활용해 상대의 에이스x, 킹x 같은 핸드를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도, 에이스x, 킹x와 같이 페어가 없는 핸드들은 거의 다 폴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션이 필요한 오버페어나 9x, 10x 이상의 파켓, 에퀴티가 좋은 드로우 핸드 등으로 큰 사이즈의 C벳이 자주 활용됩니다.

실전 예시로, 블라인드 600/1200, 40BB 스택에서 10-10으로 로우잭 포지션에서 2BB 오픈, 빅블라인드 콜, 플랍은 9-8-4. 이때 히어로는 팟벳에 가까운 C벳을 했고, 상대방은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보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이즈 C벳을 하지 않으며, 그래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하는 핸드들은 잭10, 8x, 9x, 하트 수딧, 각종 파켓페어 등 우리가 앞서 있는 핸드들이 많으므로, 큰 사이즈로 밸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드(9-8-4 투톤) 외에도 9-5-4, 8-5-2 레인보우, 10-6-4 투톤, 10-7-5, 잭-7-6 레인보우 등 한 방 플러시가 어렵고 다이나믹한 플랍에서는 큰 사이즈로 C벳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TO 차트를 보면, 오버벳팅(83%~125%)을 자주 사용하는 플랍 텍스처들이 여럿 있고, 오버페어나 탑페어 굿키커, 9x, 8x 등 밸류 핸드는 큰 사이즈로, 잭10, 퀸10, 퀸잭 같은 블러프 핸드도 큰 사이즈로 베팅합니다.

반대로 에이스, 킹, 퀸 오버카드 핸드(특히 백도어 드로우 없는)는 체크백 빈도가 높고, 백도어 드로우가 있는 오버카드는 좀 더 공격적으로 C벳합니다.

결론적으로, 9-8-4처럼 다이나믹한 플랍에서는 오버페어, 탑페어, 강한 드로우로 큰 사이즈의 C벳을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팟 사이즈를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상대방에게 저렴하게 드로우를 볼 기회를 주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밸류와 프로텍션, 그리고 블러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만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플랍 텍스처와 핸드에 따라 유연하게 베팅 사이즈를 조절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높은 MTT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포플 플레이하는 방법 [백도어 플러시 편]

히어로는 하이잭 포지션에서 퀀텐 스페이드 수딧을 받고 오픈레이즈를 하여, 빅블라인드와 헤즈업 상황이 됩니다. 플랍은 8스페이드, 3클로버, 2클로버로 깔렸고, 히어로는 두 오버카드와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보드는 빅블라인드에게 유리한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잭에서는 넓은 레인지로 C벳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퀀텐은 쇼다운 밸류가 애매해서 블러프 콤보로 적합합니다.

히어로는 3분의 1 팟 사이즈로 C벳을 했고, 빅블라인드가 콜을 합니다. 턴에는 7스페이드가 떨어지며 플러쉬 드로우가 완성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는 플러쉬 드로우가 열렸으므로 큰 사이즈로 배럴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마지막 페어(2X, 3X)나 애매한 파켓들에게 폴드 압박을 줄 수 있고, 8X나 7X로 콜을 하더라도 히어로는 클린한 투오버 카드와 플러쉬 드로우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즉, 빅블라인드가 투페어나 스트레이트를 만들기 어려운 텍스처에서는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로 배럴을 이어가기 유리합니다. 반대로, 만약 보드가 8-3-4 투톤이고, 턴에 5스페이드 같은 카드가 떨어진다면,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스트레이트 콤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배럴 빈도가 확연히 낮아집니다. 즉, 플러쉬 드로우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배럴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 텍스처에 따라 전략적으로 빈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하이잭 대 빅블라인드 50BB 상황의 GTO 차트를 보면, 하이잭은 플랍에서 9파켓 이상의 페어들은 항상 베팅하고, 특히 9파켓과 10파켓이 가장 큰 사이즈로 베팅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퀀텐 스페이드 수딧도 높은 빈도로 시벳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이즈의 베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킹하이, 에이스하이 일부를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턴에 7스페이드가 떨어지면, 퀀텐 스페이드 수딧으로는 큰 사이즈의 배럴이 가능하고, 체크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작은 사이즈 베팅은 거의 사라지고, 체크 또는 큰 사이즈 베팅만 남습니다. 즉, 밸류와 블러프 모두 폴라라이징된 레인지로 턴을 플레이하는 것이죠.

실제로 9파켓 이상의 오버페어, 에이스킹, 에이스퀸 같은 핸드들은 83% 이상 오버베팅도 자주 하며, 체크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블러프 후보군으로는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가 있는 핸드들이 들어가며, 퀸나인, 퀀텐, 퀸잭, 에이스오브스페이드 같은 강한 플러쉬 드로우들이 블러프 배럴 레인지에 포함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2X, 3X, 마지막 파켓들은 콜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필드에서는 6파켓도 자주 폴드가 나오는 등, 드로우가 없는 에이스하이, 킹하이도 많이 폴드합니다. 상대가 8X, 7X로 콜하더라도 히어로는 플러쉬 드로우와 투오버라는 높은 에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플랍에서는 오버페어와 강한 드로우로 항상 C벳을 할 수 있고, 블러프 레인지에는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 핸드들이 포함됩니다. 턴에 플러쉬 드로우가 완성된 경우 큰 사이즈로 배럴을 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마지막 페어나 약한 파켓들은 폴드 빈도가 높아집니다. 블러프로서 퀀텐 스페이드 수딧은 플러쉬 드로우에 투오버까지 갖고 있으므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8-3-4, 8-4-5, 8-6-x 같은 보드에서는 상대방의 투페어, 스트레이트, 세컨페어 비율이 높아져 체크백 빈도가 상승합니다. 보드가 더 커넥트될수록, 즉 5, 6, 7 같은 카드가 떨어질수록 체크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오버카드(에이스, 킹, 퀸, 잭, 10)가 떨어지는 런아웃에서는 오히려 배럴 빈도가 올라가며, 이런 경우 하프팟 이상의 사이즈로 공격적으로 배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턴 카드가 낮은 카드일수록 체크백 빈도, 높은 오버카드가 떨어질수록 배럴 빈도가 올라가고, 에이스가 깔렸을 때는 상대 레인지에 에이스하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빈도가 떨어집니다. 7스페이드, 6스페이드, 5스페이드 같이 보드가 더 연결되는 턴에서는 배럴 빈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며, 그럴 땐 체크가 더 자주 선택됩니다.

핵심적으로, 플러쉬 드로우를 활용한 블러프 배럴은 보드 텍스처와 상대 레인지 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빈도와 베팅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표처럼 정리해 두고, 플랍과 턴 런아웃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MTT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라인드vs블라인드, BB에서 아이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블라인드 vs 블라인드(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 간) 포스트플랍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기존 강의들이 언더더건, 미들 포지션, 버튼에서의 오픈레이즈 이후 플랍 전략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에서 림프 또는 레이즈 이후 어떻게 베팅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스몰블라인드가 림프하고 빅블라인드가 레이즈하는 '아이소팟'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모두 폴드 후 스몰블라인드가 림프, 빅블라인드가 킹구 수딧으로 3.5BB 레이즈, 스몰블라인드가 콜, 플랍은 에이스-8-3 레인보드가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킹구 하이 같은 핸드는 쇼다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굳이 C벳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크백을 선택하고, 턴에 4스페이드가 떨어졌을 때 상대가 작은 프로브 베팅을 했을 때도 킹구 클로버 수딧으로 콜, 리버에서 체크백을 하며 쇼다운에 갑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4-7 오프슈트를 보여주며 이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플랍에 칠 걸 그랬네"라는 후회가 아니라, C벳의 목적성과 밸류, 블러프 성립 여부를 따져 정확한 균형적 사고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예로 빅블라인드에서 잭칠 스페이드 수딧을 받았을 때, 스몰블라인드가 림프하고 빅블라인드가 3.5BB로 아이솔레이션 레이즈를 하는 플레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잭칠 스페이드 수딧 같은 핸드는 프리플랍 레이즈보다 체크해서 플랍을 편하게 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핸드로 레이즈하면 도미네이트되는 핸드는 폴드하고, 더 좋은 핸드는 콜하게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몰블라인드가 림프 3벳 전략을 잘 구축했다면, 이런 미들급 수딧 핸드로는 플랍을 못 보고 폴드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에서 스몰블라인드 림프에 맞서는 아이솔레이션 레이즈 핸드는, 포스트플랍에서 플레이가 불리한 약한 핸드(예: 8-4오프, 9-3오프, 10-3오프 등)로 폴드 이퀄리티를 노리고 레이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강한 핸드는 당연히 아이소 레이즈 가능하고, 중간 강도의 핸드들은 체크로 구성하는 것이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블라인드 vs 블라인드는 다음 세 가지 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림프팟: 스몰블라인드가 콜, 빅블라인드는 체크
2. 아이소팟: 스몰블라인드 콜, 빅블라인드 레이즈, 스몰블라인드 콜
3. 오픈레이즈팟: 스몰블라인드가 오픈레이즈, 빅블라인드 콜

여기서 아이소팟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빅블라인드는 폴라라이즈된(강한 핸드+쓰레기 핸드) 레인지로 레이즈, 중간 핸드들은 체크로 전략을 구성합니다.

버튼 vs 빅블라인드 구도와 비교했을 때, 버튼 오픈레이즈(프리플랍 오픈레이즈)는 항상 리니어(좋은 핸드는 레이즈, 나쁜 핸드들은 폴드)합니다. 하지만 빅블라인드는 폴드 옵션 없이 체크 또는 레이즈만 가능하고, 3벳을 맞았을 때 대응이 어려운 중간 수딧 핸드들은 체크로, EV 손실이 적은 약한 핸드들은 레이즈로 아이솔레이션하는 폴라라이즈된 레인지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프슈트 에이스X 핸드들은 도미네이트되는 위험 때문에 의외로 체크빈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레이즈하면 더 약한 킹X, 퀸X 등이 폴드되고, 더 강한 에이스X가 남아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이스X 오프슈트보다 킹X, 퀸X, 잭X, 텐X, 구X 오프슈트가 더 자주 아이솔레이션 레이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폴라라이즈된 프리플랍 레인지를 만들면, 플랍 이후에도 균형 잡힌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플랍에서 빅블라인드의 시벳 빈도는 전체적으로 50% 내외로, 버튼 vs 빅블라인드(70% 이상)보다 낮습니다. 이는 폴라라이즈된 레인지 특성 때문인데, 버튼은 강한 핸드 위주로 오픈하지만, 빅블라인드는 약한 핸드와 섞여 있기 때문에 플랍에서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버튼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잭-5 레인보드에서는 버튼이 오픈한 경우 높은 빈도와 큰 사이즈의 시벳이 적합하지만, 빅블라인드가 아이소한 경우는 체크백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작은 사이즈의 시벳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A-x, 미들페어, 하이카드 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우페어 보드나 킹-7-3 보드 등에서는 빅블라인드가 비교적 넓은 레인지로 1/3~1/2 팟 사이즈의 시벳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빅블라인드 vs 스몰블라인드 아이소팟에서는 플랍에서 전체적으로 2번 중 1번 정도만 시벳을 하고, 버튼 vs 빅블라인드는 10번 중 7번 정도 시벳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폴라라이즈된 레인지를 쓰는 이유는, 좋은 핸드만 레이즈해버리면 림프팟에서 아예 힘을 못 쓰게 되어 전체 EV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체크레인지에도 일정 수준의 강한 핸드를 남겨두어야 림프팟과 아이소팟 모두에서 균형적인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블라인드 vs 블라인드의 프리폴랍/포스트폴랍 아이소레이션 전략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림프팟 전략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레크와 레귤러를 상대하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는 레귤러와 레크레이션(레크)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의 서로 다른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누가 레크이고 누가 레귤러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일반적으로 레귤러는 포커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플레이어, 레크는 경험이 적고 아직 개념이 부족한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두 유형을 상대할 때 우리의 전략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로, 히어로가 버튼에서 에이스6 하트 수딧을 받고 오픈레이즈 후 빅블라인드가 콜, 플랍은 텐-3-2 레인보드가 깔립니다. 이런 보드에서는 버튼이 1/3 팟 사이즈로 레인지 베팅을 거의 100% 빈도로 할 수 있습니다. 빅블라인드가 콜한 뒤, 턴에 2하트가 떨어져 플러쉬 드로우가 생기면, 여기서 배럴을 이어갈지, 체크백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상황에서 턴 배럴 빈도를 상대의 성향에 따라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레크 플레이어**는 턴이 블랭크(특별한 변화 없는 카드)로 떨어질 때 플랍에 맞은 페어를 잘 폴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x 같은 탑페어를 갖고 있다면 턴에 2 같은 블랭크가 떨어져도 여전히 자신의 핸드가 좋다고 생각하고 큰 배팅에도 쉽게 콜합니다. 즉, 블랭크 카드에서는 배럴보다는 체크백 빈도를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스, 킹, 퀸처럼 오버카드가 떨어졌을 때는 10x, 마지널 페어, 중간 파켓들이 오버폴드를 하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배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레귤러 플레이어**는 레인지 기반으로 사고합니다. 즉, 자신의 핸드 한 장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 레인지와 상황, 상대의 액션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턴에 오버카드가 떨어져도, 단순히 카드에 겁먹지 않고 우리의 배럴이 레인지 어드밴티지를 이용한 것인지까지 고려하며 플레이합니다. 이 때문에 레귤러 상대에게는 오버카드가 떨어졌을 때 과도하게 배럴을 이어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체크백 빈도를 오히려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턴에 블랭크가 떨어졌는데 계속 배럴하면, 오히려 마지널 핸드로도 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크 플레이어는 자신이 10x 같은 탑페어를 갖고 있으면 턴이 블랭크여도 쉽게 콜하고, 오버카드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겁을 먹고 폴드합니다. 반면 레귤러는 턴이 오버카드로 바뀌더라도 레인지 개념으로 컨티뉴를 고려하고, 우리가 계속 배럴을 친다 해도 우리 레인지가 강해졌을 가능성을 이해하며 대응합니다.

또한, 레크들은 플랍에 맞은 핸드가 마음에 들면 거침없이 콜을 많이 하지만, 오버카드가 떨어질 때는 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오버폴드를 많이 합니다. 반면 레귤러들은 오버카드, 백도어드로우 등 미래 스트리트까지 고려해 플레이하며, 이런 상황에서 쉽게 폴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레크 플레이어** 상대로는 턴에 오버카드가 떨어졌을 때 강하게 배럴, 블랭크에서는 체크백 빈도 증가
- **레귤러 플레이어** 상대로는 블랭크가 떨어졌을 때 계속 배럴하는 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므로, 오버카드 상황에서는 체크백 빈도 높이고, 플랍/턴에서 레인지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상대의 유형에 따라 배럴 빈도와 전략을 조정하면, 좀 더 실전적인 익스플로잇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OOP에서 cbet을 잘 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 포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차트와 기본적인 룰만 알고 게임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시작합니다. 자신은 원리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포커가 사람에게 환상과 착각을 주기 쉬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임이죠. 실제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코칭을 받는 사람은 포커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코칭을 받고 실전에 적용해 실력이 향상된 사람도 많지 않고, 대부분은 잘못된 방식이나 고집대로 플레이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나 홀덤페에서는 관광객, 레크, 초보자가 항상 존재하고, 프로 플레이어들은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실제로 이 게임으로 인해 파산한 사람도 많고, 위험한 게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돈을 태워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포커 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택시비 몇 천 원도 아끼지만 바잉 50만, 100만 원은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도박적인 접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포커의 본질은 인간 본능에 반하는 선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직관과 달리 GTO(Game Theory Optimal) 전략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은 플레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탑페어 맞았으니 무조건 배팅, 플러쉬드로우니까 무조건 배팅이라는 직관에서 벗어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GTO대로 안 하는데 내가 GTO대로 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와 국내 모두 마찬가지고, GTO는 GTO대로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을 익스플로잇(공략)하기 위한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핸드 리뷰 예시를 들어봅시다. 로우잭(얼리 포지션)에서 오픈, 버튼이 플랫, 플랍은 A96 레인보드. 만약 우리가 킹스(포켓 K)를 갖고 있다면, 이 보드에서 1/3 팟 사이즈로 배팅하는 게 좋은가, 체크하는 게 좋은가? 실제로 배팅하면 콜하는 핸드들은 대부분 에이스X, 9X, 드로우 핸드 등입니다. 킹스로 배팅했을 때 폴드하는 핸드들은 킹스에게 별 의미 없는 핸드들이고, 콜하는 핸드들은 이미 킹스보다 훨씬 강한 핸드들입니다. 즉, 킹스가 이 상황에서 밸류를 받기는 어렵고, 블러프를 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GTO 차트 상에서 킹스의 체크 빈도가 높은 이유는, 이 보드에서 배팅의 기대값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콜하는 핸드들은 강한 에이스X, 셋(트립스), 양차(스트레이트 드로우) 등으로, 우리가 이기는 핸드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체크를 하면 상대방의 블러프 레인지(예: 잭텐, 7파켓, 8파켓 등)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이때 체크콜로 대응하면 됩니다. 즉, 체크를 통해 상대방의 블러프 기회를 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핸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커 개념이 바로 "체크 밸런싱"입니다. 에이스X와 같이 강한 밸류 핸드로도 가끔 체크를 섞어줌으로써, 상대가 우리 체크 액션을 보고 핸드를 쉽게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에이스X 중에서도 키퍼가 낮은 핸드(AX2, AX3, AX4 등)는 체크를 더 많이 섞고, 키퍼가 높은 AX는 배팅 위주로 가는 식입니다. 이렇게 체크와 배팅을 밸런스 있게 섞어야 상대에게 읽히지 않는 플레이가 됩니다.

또한, 블러프 후보로는 백도어 플러쉬 드로우,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 오버카드 등이 적합합니다. 이들로 적당히 공격을 섞어줘야 밸류 핸드들이 있을 때도 충분한 밸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스X일 때만 무조건 배팅, 킹스는 무조건 체크처럼 패시브하게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런 플레이는 너무 읽히기 쉽고, 상대가 우리 액션을 보고 마음껏 익스플로잇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GTO 전략의 핵심은 밸류와 블러프, 체크와 배팅의 균형(이퀄리브리엄, 내시 균형)입니다.
- 에이스가 보드에 깔린 A96 같은 보드에서 킹스, 퀸스, 잭스, 텐스 같은 핸드들은 체크를 많이 하고, 낮은 키퍼의 에이스X로는 체크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 체크를 통해 상대방의 블러프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가 우리를 마음대로 익스플로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밸류 핸드만 배팅하고, 약한 핸드들은 무조건 체크하면 레인지가 너무 투명해집니다.
- 블러프와 밸류를 적절히 섞고, 체크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GTO 전략의 기본입니다.

결국, GTO의 균형을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다룬 체크 밸런싱 개념을 익혀서, 실전에서 좀 더 읽히지 않는 강한 플레이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체크레이즈 맞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적인 상대, 특히 빅블라인드 포지션에서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를 하는 상대와 플레이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풀에서는 넓은 레인지로 C벳을 하지만, 체크레이즈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턴에서 한 번 더 배팅을 맞았을 때 어떤 핸드로 콜을 하고, 어떤 핸드는 폴드해야 할지 전략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번 영상의 핵심은 빅블라인드가 체크콜이 아니라 체크레이즈 라인을 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잭에서 에이스잭 스페이드 수딧을 들고 2.3bb로 레이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한 뒤 플랍이 텐 스페이드, 3하트, 2하트로 깔렸다고 합시다. 이런 보드에서는 거의 100% 빈도로 레인지베팅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체크레이즈를 한다면, 상대의 레인지가 균형적이라고 가정할 때 에이스잭 수딧은 무조건 콜, 즉 퓨어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일부 핸드, 예를 들어 에이스잭 다이아 수딧이나 클로버 수딧 등은 폴드하는 익스플로잇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체크레이즈를 맞고 콜한 뒤 턴에서 추가적인 배팅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AQT 같은 좋은 카드를 맞으면 더블배럴에도 콜이 수월하지만, 별 의미 없는 카드가 떨어지면 이런 핸드는 폴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턴에서 잭이나 텐 같은 오버카드가 깔리고 상대가 계속 어그레션을 가져간다면 오버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결국 체크레이즈에 대응하는 우리의 레인지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체크레이즈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표적 이유는, 레인지베팅이 적합하지 않은 보드에서 굳이 레인지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69 레인보우, 764 투톤 같은 플랍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레인지베팅 자체가 실수인 경우가 많죠. 이런 보드에서는 2오버에 백도어 플러시드로우를 들어도 A색의 경우 높은 빈도로 체크해야 하며, 오프스트의 경우 더욱 레인지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또, 60BB 상황의 하이잭 대 빅블라인드 플랍 10에서는 작은 사이즈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50% 디빈도로 오버베트나 체크 두 가지 전략만 남깁니다. 실제로 이런 보드에서 에어라인, 킹스, 퀸스, 잭스, 텐스 등 높은 페어는 큰 사이즈로 오버베팅을 할 수 있지만,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에이스 잭 같은 핸드는 체크백 빈도가 높습니다. 9랭크 이상의 탑페어도 키커가 높을수록 큰 사이즈로 벳을 할 수 있고, 오픈레이즈한 에이스 계열은 높은 빈도로 체크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에이스잭 스페이드 수딧 등으로 1/3 사이즈로 레인지베팅을 한 뒤 상대가 체크레이즈를 한다면, 사실상 콜이 맞는 핸드임에도 폴드를 해버려서 EV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필드에서는 블러프 체크레이즈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초에 C벳을 할 때 이 보드가 레인지베팅 보드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764 투톤 플랍, 369 레인보우 등에서는 오버베팅보다는 체크와 큰 사이즈(예: 83%) 벳의 비중이 높고, 체크백 빈도도 60%로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투페어나 한방 스트레이트가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많기 때문에, 하이잭이 넛 어드밴티지를 가진 보드에서는 오버베팅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레이즈에 약해지는 이유는, 큰 사이즈로 베팅하면 안 되는 보드에서 큰 벳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78 레인보우에서 하이잭이 오픈, 빅블라인드가 콜한 뒤 플랍이 깔렸을 때, 하이잭 레인지에는 9파켓 이상의 오버페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넛 어드밴티지는 오히려 빅블라인드가 가집니다. 이럴 때는 큰 사이즈 벳이 거의 필요 없고, 작은 사이즈로 레인지벳을 해야 하죠. 실제로 이런 보드에서 빅블라인드는 7x, 8x, 109, 썬라인 등 다양한 핸드로 체크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필드에서는 일부 파켓핸드로 체크레이즈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GTO와 반대의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작은 사이즈로 C벳했을 때 상대가 넓은 레인지로 체크레이즈를 하면, 우리 역시 더 넓게 컨티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전에서 기억해야 할 익스플로잇 전략 중 하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플랍에서 체크레이즈를 하고 나서 턴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플랍에서 블러프 체크레이즈를 했다가 턴에 블랭크 카드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추가 배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턴에 배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핸드들은 GTO에서나 그렇지, 필드에서는 대부분 한 번에 그치죠. 그래서 플랍 체크레이즈를 콜한 뒤 턴의 상대 액션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크레이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레인지베팅이 적합하지 않은 보드에서 베팅했거나, 큰 베팅이 안 되는 보드에서 큰 사이즈로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로우 페어 보드, 4-4-6, 5-8-7, 7-7-8 등에서는 절대 큰 사이즈 베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교정해도 빅블라인드의 체크레이즈에 대응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제 체크레이즈의 목적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밸류 핸드로 찢을 키워 상대의 탑페어, 오버페어, 드로우 핸드들에게 최대한 밸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강한 핸드로 트랩이나 슬로우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밸류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수동적이지 않게 찢을 키워야 합니다.

또 다른 체크레이즈의 목적은 상대의 넓은 레인지 C벳에 대한 응징입니다. 예를 들어 블러프 체크레이즈를 더 자주 활용하거나, 거샷+백도어 플러시드로우 등으로 오버 C벳하는 상대를 상대로 체크레이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블러프 체크레이즈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상대가 굉장히 자주 폴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체크레이즈를 시도하는 스팳은 빅블라인드가 좋아 보이는 보드, 키퍼가 애매한 탑페어나 세컨페어, 파켓페어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핸드로 체크레이즈를 하는 건 정말 재앙입니다. 특히 세컨페어나 파켓페어로의 체크레이즈는 GTO적으로도 거의 하지 않는 라인입니다. 반면 실전에서는 이런 핸드로 체크레이즈를 과도하게 많이 하죠.

오히려 체크레이즈를 해야 할 블러프 핸드, 예를 들어 거샷, 백도어 플러시드로우, 팔거샷 등으로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TO와 인간 플레이어의 체크레이즈 레인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격차를 익스플로잇 전략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전략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GTO 기본 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넷 플러시드로우는 실제로 GTO보다 훨씬 자주 체크레이즈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플랍 텍스처별 체크레이즈 대응 전략을 예로 들면, 가장 드라이한 킹-7-2 레인보우 보드에서는 체크레이즈가 거의 밸류 중심이고, 블러프는 적은 언더블러프 스팳입니다. 이런 경우 잭스 같은 핸드로 C벳 후 체크레이즈를 맞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애초에 C벳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10-9-3 투톤 보드처럼 드로우가 많은 보드에서는 체크레이즈 빈도가 높고, 오버페어 등으로 트랩 없이 패스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우 페어 보드(예: 4-4-6)에서는 빅블라인드의 체크레이즈 레인지에 4x 뿐 아니라, 파켓페어, 탑페어, 잭-6 등 다양한 마지널 핸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턴에 상대가 계속 배럴한다면 오버폴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으로, 테이블이 소프트하고 바인 금액이 낮다면 갑작스러운 체크레이즈에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스팳에서 다시 밸류를 챙기는 패시브 라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하는 플레이어가 많은 대회라면, 더 좋은 스팳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매 핸드에서 최적의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플레이어들이 투페어로는 거의 100% 체크레이즈를 하고, 엉뚱한 핸드로도 자주 체크레이즈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플랍 텍스처와 테이블 분위기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OP에서 cbet하는 방법

8파켓으로 사가동님이 오픈하고 뒤에서 플랫콜이 들어온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랫이 어떤 포지션에서 나왔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빅블라인드, 스몰블라인드, 컷오프, 버튼 등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로우잭이나 하이잭에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가 콜한 경우, 플랍이 에이스-킹-6처럼 떨어졌을 때 빅블라인드 상대로는 c벳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컷오프나 버튼에서 플랫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오히려 체크백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스몰블라인드와 빅블라인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스몰블라인드는 GTO 상으로는 22% 정도의 비교적 좁은 레인지로 방어하고, 빅블라인드는 훨씬 넓은 약 65%까지 방어합니다. 실전에서는 스몰블라인드가 GTO보다 더 넓게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0.5BB만 추가로 내면 되기 때문이라는 심리와, 빅블라인드가 3벳 스쿼츠를 잘 안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레크리셔널 플레이어들은 스몰블라인드에서도 빅블라인드처럼 퀸텐, 킹텐, 잭텐, 퀸잭 오프 등 다양한 오프숏 브로드웨이, 에이스 X, 6-5, 6-7 오프 등으로까지 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퀸드오프(컷오프)에서 플랫하는 레인지는 약 12% 정도로, 하이잭과 큰 차이가 없고 버튼은 더 넓습니다. 스몰블라인드는 반드시 OOP(포지션이 없음)로 플레이해야 하므로 더 타이트하게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이잭은 뒤에 퀸드오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오픈 레인지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컷오프와 버튼은 플랫 빈도도 올라갑니다. 각 포지션별로 플랫 레인지와 3벳 레인지의 비율도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즉 퀸드오프가 플랫하고 플랍이 에이스-킹-6처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핸드로, 어떤 사이즈로 c벳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스가 맞았다면 1/3이나 1/4 팟 사이즈로, 6파켓이나 킹X 같은 핸드도 1/3 사이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킹X로는 1/2이나 2/3 사이즈가 맞으면 대부분의 상대가 콜을 못 하므로, 오히려 더 작은 사이즈로 여러 핸드의 콜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텐(마운틴 텐, QT) 같은 드로우 핸드들은 판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 체크콜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P(포지션 있음)와 OOP(포지션 없음)의 차이입니다. 오픈하고 플랫이 IP에서 나오면 오픈한 쪽은 레인지 어드밴티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c벳 빈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c벳을 할 때는 주로 강한 에이스X, 킹X 핸드로만 진행합니다. 나머지 핸드들은 체크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에이스X나 킹X로 c벳할 때 1/3~1/2 팟 사이즈가 가장 무난합니다. 킹퀸처럼 킹X로 작은 사이즈로 c벳을 할 때는, 우리보다 낮은 킹X, 6X 등에게 밸류를 받을 수 있고, 낮은 파켓이나 마지널 핸드들은 작은 사이즈엔 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사이즈를 사용하면 폴드가 많이 나와서 밸류를 얻기 어렵죠.

8파켓처럼 마지널한 핸드들은, 이 보드에서 밸류를 받을 콤보가 거의 없으므로 배팅보다는 체크가 선호됩니다. 8파켓으로 배팅을 강하게 하면 폴드시킬 수 있는 건 9파켓, 10파켓 같은 약간 높은 파켓들이나, 마지널 킹X 정도인데, 실제로는 에이스X나 킹X 같은 주요 콤보들은 다 콜을 하기 때문에 블러프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핸드들은 체크백을 하고, 체크 레인지도 에어라인, 킹스 등 강한 핸드와 같이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체크 레인지를 보호해야 상대의 블러프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게임에서 한참 죽다가 핸드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밸류벳만 하려고 하거나, 체크 밸런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커는 확률 게임이고, 장기적으로 EV(기대값)가 플러스가 나는 전략을 반복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ROI(Return on Investment)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평균 ITM(인 더 머니)도 보통 15~20% 정도가 정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찾고, 장기적으로 플러스 EV 플레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마이너스 EV의 배팅을 반복하면 결국 손실로 이어지므로, 마지널한 핸드로는 체크 밸런싱을 적절히 섞어가며 플레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이스X에 낮은 키커나 셋, 에어라인, 킹스 같은 강한 핸드도 가끔은 체크백해서 체크 레인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